

# 국민대, 정릉아리랑시장 활성화… 식당 메뉴 개발 참여

시장 식당서 시식회·품평회 열어  
‘특화 상점 레시피 고도화’ 프로젝트  
국민대 식품영양과, 전문가와 협업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교수와 학생들이 신메뉴를 개발해 학교 인근 정릉아리랑시장 식당 세 곳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대의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념이 좀 자극적입니다. 간을 다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지난 7일 정릉아리랑시장, 한 무리의 상인들이 인근 식당들이 개발해 내놓은 신메뉴를 시식과 평가가 진행됐다.

이날 정릉아리랑시장의 식당 세 곳이 선보인 메뉴는 국민대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한 레시피를 전수받은 것으로 이날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민아 교수와 학생들이 신메뉴를 개발해 학교 인근 정릉아리랑시장 식당 세 곳에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것으로, 국민대 교수와 학생들은 식당 메뉴 중 대학생이 선호하는 맛과 고리가 있는 일부 메뉴에 대해 청년들의 유인도가 높은 레시피를 신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약 2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프로젝트에 따라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이민아 교수와 학생들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정릉시장의 식당들을 방문해 기존 메뉴들을 점검하고 신메뉴 개발 방향을 정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첫 주 교내 구성원과 정릉아리랑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품평회를 열었다. 국민대는 향후 신메뉴가 확정돼 판매되면 매출 증대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민대와 함께 지난 2개월간 머리를 맞댄 식당 세 곳은 새로운 메뉴로 고객을 찾을 계획이다. 양념·후라이드 치킨

위주의 우리집양념통닭의 경우는 식재료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짚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닭껍질 튀김, 닭똥집 튀김 등을 새로 선보여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다. 또 부미식당은 삼겹살덮밥과 불고기덮밥을, 성원쌈밥은 닭목살볶음 을 신메뉴로 추가해 시식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통시장 대학협력 사업추진단장을 맡은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황보윤 교수는 “단순히 메뉴 개발을 넘어 짚은종이 선호할 수 있는 매장 인테리어, 서비스 등도 함께 고안했다”며 “향후 활동은 개발된 신메뉴 홍보를 위해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지원하는 소셜 미디어 지원팀이 운영될 것이며 짚은종의 시장 방문을 증가시키기 위한 볼거리용 조형물 제작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면접 실수, 이것 만큼은 주의하세요”

다양한 면접별로 대응해야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 대비

올 하반기 신입공채 면접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면접 유형’이다. 하반기 면접 전략과 탈락을 부르는 면접에서의 치명적 실수는 무엇일까.

1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삼성, SK, 롯데그룹 등은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 면접 등 단계별 시행되는 기존 면접 대신 하루에 모든 면접을 끝내는 ‘원데이 면접’을 치른다.

KB국민은행,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빙그레, JW중외제약, KT&G는 AI면접을 도입해 직무 적합도를 판단한다. 이밖에 실무면접, PT면접, 토론면접, 인성면접 등 다양한 면접 유형이 선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면접전형에서는 지원하려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 스스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각 면접전형 유형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자기소개서 등 제출한 서류와 면접 응답내용 사이의 고리감을 없도록 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반복 숙지해



취업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

예상질문과 답변을 적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면접장 실수로는 ‘달달 외운 모범답안’, ‘~것 같습니다’나 ‘~로 알고 있습니다’ 등의 애매한 답변 등이 꼽힌다.

잡코리아 윤성훈 컨설턴트는 “가장 안타까운 지원자 유형은 ‘너무 외운 티가 나는’ 지원자”라며 “예상 질문을 뽑고 문장의 형태로 외우면 정확히 외운 문장을 말하지 못할 경우 큰 실수로 연결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을 준비할 때는 문장이 아닌, 꼭 말해야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답변을 준비하고 이 단어들을 연결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해보자”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 현병 ‘하이바’, 고려시대 투구모양으로 바뀐다

〈헬멧〉

연말부터 새로운 현병 제복 도입  
“화려한 제복 vs 업무하기에 부담”

검정바탕에 흰색 ‘현병’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육군 현병 헬멧이 올 연말부터 ‘고려시대 투구’를 응용한 형태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병제복 및 사이드카 복장을 비롯한, 군악 및 의장대의 예식복인 특수군복도 함께 개선될 계획이다.

육군의 현병 헬멧을 비롯한 특수군복의 개선은 전통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의 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일선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편한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공개된 육군 현병 복장 및 장구류 등 개선안에 따르면, 헬멧 중앙에 ‘현병’ 대신 육군의 상징하는 금속 장식과 뿐이 솟은 형태의 현병 헬멧을 최종



지난 4~7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지상군 패스티벌에 전시된 새 현병 복장 시제품. 고려시대 투구 디자인이 적용된 현병 행사./팀 디37병기

확정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각급 부대 현병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짙은 녹색의 현병제복도 하절기에는 흰색 상의, 동절기에는 검정색 상의로 바뀌게 된다. 또한 현병행사모도

### 대학가 소식

## 사립대학 절반만 등록금 ‘카드’ 납부 가능

범위 넓혀도 지난 3년간 변화 無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립대학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등록금 카드납부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체 416개교(전문대·대학원대학 포함) 가운데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209곳으로 5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9.8%(207곳)은 카드로 등록금을 내지 못한다.

특히 4년제 사립대학 177곳 가운데 카드납부가 가능한 곳은 82곳으로 전체

의 46.3%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대학은 47곳 가운데 43곳(91.5%)이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등록금을 카드로 낼 수 있는 사립대학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2017년에는 카드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립대학은 42.9%였고, 지난해에는 45.9%로 집계돼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가운데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은 고려대를 비롯해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숙명여대 등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 교육부

####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교육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등도 함께 열린다.

평생학습대상 대상(국무총리상)은 은평구 내 28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지역네트워크형 대안대학인 은평시민대학이 차지했고, 우수상 5명 등 총 20명이 수상했다.

개인부문 우수상(교육부장관상)은 평생학습을 통해 보일러 분야 전문가(2002년 대한민국 명장)가 돼 정년 후에도 사회활동에 참여한 성광호 씨와 충주열린 학교운영 등 교육소외계층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한 정진숙 씨가 선정됐다.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등 7개 지자체는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새로 지정돼 동판을 받는다. /한용수 기자

### 동국대 박물관

####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

동국대 박물관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근대 불교의 수호자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전은 도입부 ‘격동기의 조선, 그리고 일본의 침탈’, 1부 ‘불교, 일제에 저

항하다’, 2부 ‘한국불교를 수호하다’, 3부 ‘전통 위에 도약하다’ 등 총 4부로 구성, 100년 전 항일운동의 선봉이 됐던 당시 불교계의 활약상과 불교정신이 담긴 유물이 선을 보인다.

특히 10년 전 진관사 칠성각에서 발견된 태극기가 2009년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처음으로 전시된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덧칠해 만든 것으로, 3.1운동 당시에 사용됐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용수 기자

### 숙명여대

#### 제조기술 이전 계약 체결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설원식)은 지난 10일 교내 행정관에서 미용성형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전문기업 에스테팜(대표 이재혁)과 ‘세포배양액 담지구조체 제조 방법과 광자극을 활용한 마스크팩 제조기술’에 관한 기술이 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숙명여대 화공생명공학부 최경민 교

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피부의 세포 재생과 치료에 탁월하다고 알려진 세포배양액 내의 단백질 및 유기 영양소 전 성분을 담지할 수 있는 구조체를 저온 또는 상온에서 제조함으로써 성분의 변성 없이 회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저온 또는 상온에서 광자극을 이용해 제조해 섬유아세포배양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 기술로 평가받는다. /한용수 기자